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연구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Mediating Effects on Marit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민 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Professor, Kim, Min-Kyeong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uncov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health, couple relationships and marital happiness. The sample included 180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Mental health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conflict, bu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fficient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Furthermore, marital conflic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Second, mental health has a positive influence on marital conflict and a negative influence on marital happiness. Depress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Marital conflict does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happiness. Third, depress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Communic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happiness. In conclusion, to reduce marital conflict,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in inter-married Korean men's marital happiness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 주저자, 교신저자: 김민경(mkm35@nsu.ac.kr)

Key Words : 정신건강(mental health),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사회부적응(social mal-adaptation),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의사소통(communication), 결혼행복(marital happiness)

I. 서론

결혼이민여성에게 집중되어왔던 관심이 최근 다문화가족의 주체인 한국남성들에게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결혼생활의 가해자, 폭력자로 낙인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된 반면,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채옥희・홍달아기, 2008), 부부되기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김민경, 2009), 남편의 결혼에 대한 생애사 연구(엄명용, 2010), 남편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최지영, 2009) 등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 삶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개인의 결혼이 시작된 시점에서 결혼생활의 과정의 역정과 애환, 보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온 과정, 현재 생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결혼생활의 구체적인 원인결과 파악에는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행복(양순미, 2007), 가정생활적응요인(강기정・정천석, 2009), 결혼적응(추현화 외, 2008; 송지현・이태영, 2010), 레질리언스(장진경 외, 2009) 등 결혼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양적 접근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적응과 만족에 대한 관심은 있어 왔으나,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개인의 심리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Levine, 1991; Metz & Epstein, 2002)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추현화 외, 2008)으로 볼 때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대한 파악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요소라 하겠다.

또한 정신건강의 상황을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극복하고 결혼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결혼행복에 도달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달하고 보다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누리기 위해 올바른 부부관계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부부의 다양한 갈등요인은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배우자간 성격차이(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와 문화차이(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8), 경제문제(김정훈, 2007; 구차순,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7), 남편의 음주(설동훈 외, 2005; 최금해, 2007), 많은 연령차이(최금해, 2007: 최연실 외, 2008) 등이 꼽히며 특히 문화차이간 부부갈등이 국제결혼부부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편의 의사소통이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장온정, 2007; 송지현・이태영, 2010). 즉 부부간의 갈등감소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결혼행

복에 도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노력과 변화가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남편의 역할인식과 노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심리적 요인과 부부관계적 요인을 동시에 관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남성개인의 정신건강의 개인적 수준이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행복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결혼행복의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관계측면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은 부부상호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리해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김민경, 2009; 엄명용, 2010; 이근무・김진숙, 2009). 아울러 국제결혼한 남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서는 국제결혼이 최선의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행복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자신의 정신건강의 파악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고, 나아가 원활한 부부관계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남성의 핵심적 역할이 있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개인적 특성인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관계(부부갈등, 의사소통)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결혼행복에 미치는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며, 나아가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부부의 정신건강증진과 부부관계향상 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evine, 1991; Metz, Epstein, 2002).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건강인데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선행연구들(이경희, 1998; 조유리, 2000; Lazarus, Folkman, 1984)에서 자존감을 이용하였다.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사람들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Turner et al., 1995; House, 2001).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와 접촉은 정신건강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enjívar & Salcido, 2002).

특히 가족지지는 정신건강에 높은 예견인자이다(Hovey, 2000). 사회관계망 성원과 문제있는 상호작용은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킨다(Padilla et al., 1988; Feeney & Noller, 1990). 특히 직업관계에 대한 갈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Padilla et al., 1988; Golding & Burnam, 1990). 정서적 지지의 부족과 소원한 관계의 긴장은 디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키는데 사회중심 사회에서 자아중심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발견한다(Fischbach & Herbert, 1997).

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부관계

1) 부부갈등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부갈등요인들이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배우자간 성격차이(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와 문화차이(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8), 경제문제(구차순, 2007; 김정훈,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7), 남편의 음주(설동훈 외, 2005; 최금해, 2007), 많은 연령차이(최금해, 2007: 최연실 외, 2008), 의사소통(김오남, 2006; 김정훈, 2007) 등이 부부갈등요이으로 꼽힌다.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들로부터의 각종 폭력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핵심적 요인이다(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김이선 외, 201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타 경제적 요인들도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경희, 2004; 홍달아기・채옥희,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7). 경제적 불안정과 경제관리의 주도권 주지않음 등이 결혼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차순, 2007), 남편들은 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근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출경향이 비합리적이고 신용을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이는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김정훈, 2007).

반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자라기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라고 하였다(채옥희・홍달아기, 2008).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천대받은 것처럼 이들과 동일시한다고 하여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자기성을 재구조화한다(이근무・김진숙, 2009)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일방적 가해자적 시각을 수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문화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데(강유진, 1999; Markoff, 1977; Menjívar & Salcido, 2002), 배우자와 확대가족원과의 비언어적 메시지는 대인간 의사소통에서 갈등영역으로서 문화적 구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간 결혼에서 배우자와 가족원들이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NineCurt, 1984). 한미 국제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종삼(1983)은 언어소통의 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문화적 갈등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정,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의사소통 자체의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박태영, 1998; Kim, 1979; Lee, 1980; Jeong & Schumm, 1990)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부부간 만족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특히 한국문화는 남편이 부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워

하지 않은 경향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남성과 일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대한 연구(이규삼, 1999)에서는 부부갈등요인으로 부부간의 대화, 문제해결기술, 부정적 대화나 부정적 문제해결의 유형 등이 포함되었는데 한국남편은 지배적이며 의사소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일본여성들은 내성적이고 정서적이며 공유시간 및 가족관계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

1) 정신건강과 결혼행복

정신건강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최명민, 2010). 이러한 특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엄명용, 2010). 국제결혼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이근무와 김진숙(2009)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의 자국문화의 이해노력이 부족할수록 결혼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김연수, 2007).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남성의 결혼생활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가족탄력성접근을 통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김연수, 2010).

2) 부부갈등과 결혼행복

부부관계요인이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민, 2010). 즉 대화빈도, 부부견해일치도, 성생활만족도, 부부간 신뢰도가 높을수록, 문화체육 공동활동이 많을수록, 심한 부부싸움경험이 적을수록 등이 유의하게 결혼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한 남성들도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가족과의 유대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 친밀한 부부상호작용 형성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양순미(2007)의 연구로 확인된다. 즉 농촌지역 국제결혼남편의 행복에는 긍정적 부부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이 남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의사소통 또한 다문화가족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송지현·이태영, 2010; 장온정, 2007). 즉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부부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3) 의사소통과 결혼행복

반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부부 뿐만아니라 일반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계나 부부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이은주, 2007)가 되고 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의사소통문제, 생활문화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강기정·정천석,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만족 수

준이 생활만족과 심리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정천석, 2008). 부부간 혹은 확대가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Del Rio, 1998; Szuki, 2004)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결혼적응에 가족스트레스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결혼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추현화 외, 2008).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이다. 이들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 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남편 18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N	%
남편 연령	30대	16	9.4	부인 연령	20대	130	72.0
	40대	68	38.5		30대	47	26.4
	50대이상	96	52.1		40대이상	3	1.6
결혼 기간	2년이하	24	13.6	자녀수	없다	6	3.0
	2-4년이하	78	42.9		1명	51	27.0
	4-7년이하	67	37.0		2명	99	53.0
	7년이상	11	6.5		3명이상	28	15.0
교육 수준	초졸	9	5.0	직업	농어업	133	74.0
	중졸	89	49.0		판매서비스직	1	0.5
	고졸	88	44.0		사무관리직	1	0.5
	대졸이상	4	2.0		기타	43	23.0
					없음	2	1.0
부인 국적	중국	42	23.0	가정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22	12.0
	베트남	105	58.0		101-150만원	59	32.0
	필리핀	13	7.7		151-200만원	33	18.0
	기타	19	10.3		201-300만원	29	16.0
					301-400만원	15	8.0
					401만원이상	22	12.0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0명으로 72.0%, 30대가 26.4%로 한국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0%, 1명이 27.0%, 3명 이상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0%, 44.0%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0%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0%, 필리핀이 7.7%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0%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중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등 총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2로 나타났다. 불안의 구체적인 문항은 '걱정 때문에 잠을 잘못 잔적이 많았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다',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 등 총 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21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의 구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등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부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32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김갑숙, 1991; 이경희, 1998; 이영실, 1989; 조유리, 2000)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 척도가 개발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개인적 영역, 부부관계영역, 공동생활영역, 제삼자영역 등 각 영역별 3문항씩으로 총 12문항이다. 개인적 영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부부관계영역은 부부간의 성(性),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동생활영역은 금전관리/소비, 주거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제삼자영역은 친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 등), 자녀양육, 사회활동(종교활동, 다른 모임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갈등을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00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서로 의미를 나누는 이해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Pearson & Spitzberg, 1990). 의사소통 척도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비밀스런 일을 배우자에게 먼저 털어 놓는다',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할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복돋아 준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

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63로 나타났다.

4) 결혼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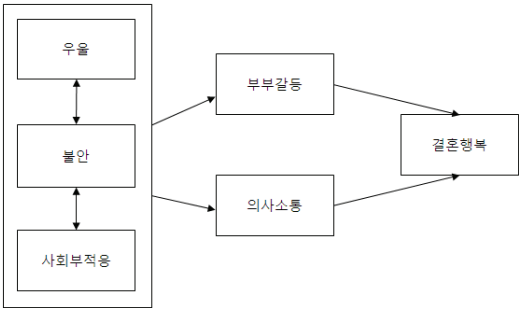
결혼행복은 Natham과 그 동료들(1973)의 Marital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양육에 행복감을 느낀다', '부부간 의사소통에 행복감을 느낀다', '성생활에 행복감을 느낀다'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810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자료분석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

IV. 연구결과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정신건강 중 사회부적응점수가 3.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 2.962, 우울 2.7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부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주변세계와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부부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이 3.118, 부부갈등이 2.972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행복도 3.327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평균	표준편차
정신건강	사회부적응	3.286	.544
	불안	2.962	.498
	우울	2.711	.671
부부관계	부부갈등	2.972	.881
	의사소통	3.118	.864
결혼행복		3.327	.605

2. 변수들의 상관관계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부부갈등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r=.468, p<.001)과 우울(r=.461, p<.001)은 부부갈등과 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불안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경우 부부갈등도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의사소통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r=-.364, p<.001)과 우울(r=-.396, p<.001)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결혼행복(r=-.264,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결혼행복(r=.539,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국제결혼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 결혼행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낮은 경우와 부부갈등이 낮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부부갈등의 결혼행복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첫째, 정신건강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부부갈등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사회부적응	1.000					
2. 불안	.220**	1.000				
3. 우울	.475***	.316***	1.000			
4. 부부갈등	.468***	.280***	.461***	1.000		
5. 의사소통	-.364***	-.159***	-.396***	-.406***	1.000	
6. 결혼행복	-.422***	-.197***	-.351***	-.264***	.539***	1.000

*p<.05 **p<.01 ***p<.001

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결과 <표 4>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울(β=.311, p<.001), 불안(β=.125, p<.05), 사회부적응(β=.273, p<.001)이 매개변인인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우울(β=-.176, p<.05)과 사회부적응(β=-.323, p<.001)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부부갈등(β=.120)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우울(β=-.171, p<.05)과 사회부적응(β=-.320, p<.001)가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갈등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사이에 매개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모든 영역 우울, 불안과 사회부적응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갈등이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을 매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일정수준 존재한다하더라도 결혼행복이 낮지 않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결혼행복을 위해 정신건강의 유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4.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의사소통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결과 <표 4>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울(β=-.283, p<.001), 사회부적응(β=-.225, p<.001)이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우울(β=-.176, p<.05)과 사회부적응(β=-.323, p<.001)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의사소통(β=.425, p<.001)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227, p<.01)과 의사소통(β= .425, p<.001)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소통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표 4〉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β	R^2	F
1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갈등	.273*** .125* .311***	.306	26.482***
2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결혼행복	-.176* -.080 -.323***	.212	16.094***
3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갈등	→결혼행복	-.171* -.070 -.320*** -.120	.212	12.019***

*p<.05 ***p<.001

〈표 5〉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β	R^2	F
1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의사소통	-.283*** -.020 -.225***	.197	14.739***
2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결혼행복	-.176* -.080 -.323***	.212	16.094***
3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의사소통	→결혼행복	-.056 -.062 -.227** .425***	.356	24.760***

*p<.05 **p<.01 ***p<.001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효율적 의사소통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이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 사이에 매개하여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도에 있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18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정신건강 중 사회부적응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부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주변세계와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게는 지역사회내에서 적극적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또한 당사자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도 가족형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신과 결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부부갈등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부부갈등과 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경우 부부갈등도 높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은 우울이나 강박과 같은 심리적 손상이 없는 상태 또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김오남, 2006)는 결과와 같이 정신건강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의사소통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유사하게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은 부부간 의사소통과도 깊은 관련성을 나타나, 개인의 안정된 정신건강의 확보는 원활한 부부간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부부갈등과 결혼행복과도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부부갈등 요인들은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0; 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는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결혼행복을 위해서 부부갈등의 관리와 적절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적절히 대처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결혼행복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국제결혼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 결혼행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혼행복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과 불안이 높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황일 때 결혼생활에서 갈등수준을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부부갈등에는 정신건강의 모든 영역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우울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하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록 결혼행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은 낮게 나타났으며(최명민, 2010),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준다(추현화 외, 2008)는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은 결혼행복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유추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부부갈등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부적응은 결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부갈등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사이에 매개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갈등이 부정적 특성을 가졌으나 결혼행복에는 부부갈등보다 정신건강의 영향력이 더 부각되어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셋째,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 중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유대가 낮게 나타난 결과(김혜신, 2011)를 미루어 볼 때 열악한 심리적 건강은 부부간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소통은 정신건강 영역인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사이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효율적 의사소통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이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 사이에 매개하여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단순한 일상적 대화를 넘어선 심리적, 문화와 관련된 복합체로서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고 상호호혜적일 때 결혼행복에 도움이 되

고 친밀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Choe, 1994)고 한 결과를 볼 때, 정신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배우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결혼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은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부적응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들을 사회로부터의 주변인이라는 언급에서 확인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실천현장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실천적 방안으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응향상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행복을 위한 방안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 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부부관계가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결혼행복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요인들이 존재할지라도 최명민(2010)의 연구에서 확인되듯 부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결혼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결혼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행복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언어적 내용에 대한 소통 뿐만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과 부부의 상호이해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해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을 위해서는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배양과 이를 도울 자원봉사자의 개발, 조직화와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에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개인, 부부 특성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결혼행복에 생태체계적 입장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의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을 위한 개인과 부부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결혼행복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결혼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간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기정 · 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2)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3)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호, 319-359.
4)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민경(2009). 국제결혼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6)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호, 217-252.
7)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대상 부부관계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69-90.
8)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호, 33-75.
9)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 및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11) 김정훈(2007). 결혼이민자 남편과 부인의 가계관리 태도비교-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85-1195.
12) 김현순・김병석(2007).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23-37.
13)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박태영(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27-49.
15) 박종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 1-15.
16)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17) 송지현・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18)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Ⅰ: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20)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21)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 17(2), 1-24.
22) 엄명용(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4), 261-298.
23)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이근무・김진숙(2009). 국제결혼한 남편들의 생애사 연구-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

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1.
26)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28) 장온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장진경・전종미・신유경(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21-38.
30)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31)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채옥희・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33) 채옥희・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34) 최금해(2007). 조선족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35) 최명민(2010). 결혼행복감의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9호, 85-114.
36) 최연실・이순형・문무경(2008).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37) 최지영(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호, 225-254.
38) 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39)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40)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9-92.
41) Bennett, J. A.(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Nursing Health, 23,* 1173-1182.
42)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43) Berry, J. W., Poortinga, H. Y., & Pandey, E.(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p 291-326. i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 Boston: Allyn and Bacon.
44) Bhugra, D.(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rica Scandinavia, 109*, 243-258.
45) Bienvenu, M. 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er 19,* 26-31.
46) Cederbald, M., Höök, B., Irhammar, M., & Mercke, A. M.(1999). Mental health in international adoptees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39-

1248.

47) Choe, J. S.(1994). Biblical resources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or marital conflicts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48) Del Rio, M.(1998). The role of connection to the native culture in intercultural marriages: Perceptions of Puerto Rican women.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49)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50) Fischbach, R. L., & Herbert, B.(1997).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nd conundrums within and across cultures. *Social Science & Medicine, 45*(8), 1161-1176.

51) Greenberg, M. T., Siegel, M. J., & Leitch, J. C.(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52) Golding, J. M., & Burnam, A.(1990). Immig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Mexican-American commun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3), 161-171.

53) House, J. S.(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st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5-142.

54) Hovey, J. D., & King, C. A.(1996). A 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183-1192.

55) Jeong, G. J., & Schumm, W. R.(1990). Family satisfaction in Korean/American marriages: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erceptions of Korean wiv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3), 325-336.

56) Kim, S. D.(1979). Interracially married Korean women immigrants: A study in margin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57)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58) Lee, D. B.(1980).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A study of marital adjustment between American husbands and Korea-born spouse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59) Levine, S. B.(1991). Psychological intimac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7*(4), 259-269.

60) Markoff, R.(1977). Intercultural marriage: Problem areas. In W. Tseng, J. McDermott, Jr., T. W. Mazareski(Eds) & G. Jones (Associates Ed),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e*(pp 51-61).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Department of Psychiatry.

61) Matsuoka, J.(199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in qualatative differences in the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7*(3/4), 1-21.

62) Menjívar, C., & Salcido, O.(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63) Metz, E. M., & Epstein, N.(2002). Assessing the role of relationship conflict in sexual dysfun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 139-164.

64) Natham, H. A., Barry, T., Robert, J., Arizin, N. H., Naster, B. J,. & Jones, R.(1973). Reciprocity counseling: A rapid learning-based procedure for marital counseling. *Behavioral Research and Therepy*, *11,* 365-382.

65) NineCurt, C. J.(1984). *Nonverbal communication.* Cambridge. Massacgusetts: Lesley College,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66) Padilla, A. M., Cervantes, R. C., Maldonado, M., & Garcia, R. E.(1998). Coping responses to psychosocial stressors among Mexic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418-427.

67) Pearson, J. C., & Spitzberg, B. H.(199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ncepts, components, and contents*. Wm. C. Brown Publishers.

68) Sandhu, S. D., & Asrabadi, R. B.(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69) Szuki, N.(2004). Inside the home: Power and negotiation in Filipina-Japanese marriages. *Women's Studies, 33,* 481-506.

70) Turner, R. J., Wheaton, B., & Lloyed, A. D.(1995). The epidemiology of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04-125.

■ 투 고 일 : 2012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16일